

전체 주제: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성경: 엡 3:16-21, 빌 2:13, 갈 2:20, 4:19

I.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체험해야 한다 — 엡 3:17상, 빌 2:13.

- A. 우주 안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고전 6:17.
- B.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 엡 3:17상.
- C.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철저히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에 관해 관심이 없고, 그 대신 오직 우리의 의도만을 주의할지도 모른다 — 빌 2:21.
- D.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엡 3:11, 16-19.
 - 1. 이 목적이 우주의 중심이며, 이 목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 계 4:11.
 - 2.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얻음으로써 전진할 길을 얻는 것이다.
 - a. 합당한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 엡 2:10, 빌 2:13.
 - b. 교회생활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 딤후 2:20-22.
 - 1)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 2)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 3. 영적인 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데 달려 있다 — 골 2:19, 엡 3:17상.
- E.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한다 — 삼하 7:12-14상, 롬 1:3-4, 엡 3:17상, 요 14:23, 골 3:10-11.
 - 1.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7상.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하시어 우리 혼 전체를 점유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 마 16:18, 엡 3:17상.

F.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마 5:3), 마음이 순수하며(8절),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고(시 27:4), 주님께 돌이키며(고후 3:16), 생명의 감각을 주의하고(롬 8:6), 기꺼이 빛 비춤을 받고자 하며(엡 1:17-18),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 드림으로 우리의 내용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3:16-19)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협력한다.

II.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갈 2:20, 엡 3:16-21.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갈 4:19.
- B. 우리의 거듭난 영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속사람이다 — 엡 3:17상.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접 촉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2.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서 계신다 — 요일 5:11-12, 골 3:4, 엡 3:17상.
 3.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새로워진 혼과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구성되는데, 새로워진 혼은 속사람의 기관이며 거듭난 영은 속사람의 인격이다 — 롬 12:2, 8:10, 엡 4:23, 고후 4:16.
 4.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 롬 8:4, 고전 6:17, 갈 2:20, 엡 3:17상.
- C. 거듭난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이전 인격인 ‘나’(자아)와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모두 갖고 있다 — 갈 2:20.
1. ‘나’는 우리의 혼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 롬 8:10, 딤후 4:22.
 2. ‘나’는 겉사람인 옛사람의 인격이며, 그리스도는 속사람인 새사람의 인격이시다 — 고후 4:16.
 3. 이전 인격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 롬 6:6, 갈 2:20.
- D.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인격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새 인격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 마 16:24-25, 골 1:27.
- E.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선호를 부인하고 그분의 목적과 목표와 선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후 5:14-15.
- F.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더 이상 우리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을 한다 — 고후 5:15.
- G.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되어 속사람인 우리의 영에 이름으로써,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6-17상.
1.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속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 있다 — 엡 2:21-22.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으로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골 3:4, 1:27.
 - a.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 — 엡 3:17상.

- b.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 엡 3:17상.
 - c.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것이다 — 갈 2:20.
- H.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을 합당한 교회생활로서 살아 나타낼 것이다 — 갈 2:20.
1.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생활을 위하신다 — 마 16:18.
 2. 살아 있는 인격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 갈 1:1-2, 15-16, 4:19.
 3.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허락할 때는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롬 6:6, 갈 2:20.
 - a.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기 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섞일 수 없다.
 - b.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고난 사람으로, 곧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나, 인종에 근거한 문화나, 민족적인 특징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따르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골 1:27, 3:4, 10-11.
 4. 합당한 교회생활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생활이다 — 엡 3:17상, 고후 4:16.
 5.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지적인 나타남이 될 수 있다 — 갈 2:20, 엡 3:16-2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고
또 그들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는 일을 하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위에,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한 가지 중심적인 일, 곧 주된 일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 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16-17절)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온다.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삼일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런 후에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들로 오르셨다(창 1:1, 요 1:1, 14, 행 2:23-24, 32, 36).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셨다(요 19:30)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 위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빌 2:13).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일은 구속을 성취하였지만, 그분의 구속은 그분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심적인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또 믿는 이들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그들이 서로 함께 철저히 하나로 연합되도록, 또한 그분께서 그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그 영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중심적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이 되셔야 할 뿐 아니라(요 4:24), 그리스도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다(고전 15:45).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따라서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써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들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을 일해 넣으시고 그들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수단임**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을 가로막음**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께서 그분의 중심적인 일을 수행하시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곧 방해하는 것이 있다. 먼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이어서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지 육 일 만에 창조의 일을 끝마치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도록 하시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가 거듭난 날 이후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 사람 안으로 넣으시는 일은 조금 밖에 성취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깊은 가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저항이 있음을 분명히 증명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자유로운 길을 얻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결코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일을 좌절시키는 주된 요인은 성경의 죽이는 문자이다(6절). 앞 장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로부터 네 가지 항목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 그 영을 마시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항목들은 모두 수 세기 동안 성경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것들을 보지 못한 것은 종교적인 관념들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낡은 성경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너울이 되었다(15절). 성경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이해에 근거한 종교적인 관념들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일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성경 지식이 없던 이방인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길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있던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다(1-12절).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는 것과 분리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성경을 대하면서도 주님을 접촉하지 못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낡고 부분적이며 죽이는 성경 지식으로부터 씻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돌이켜질 것이고, 너울은 제거될 것이며, 죽이는 문자는 체져질 것이고,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고후 3:16-17, 6). 너울이 제거될 때,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18절). 이런 변화는 주 영에게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있을 때 변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주님의 공화로 우리

가 낡은 지식을 제해 버리고 성경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방식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얻으실 것이다.

자아는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일을 하신 후, 여전히 그분 자신을 우리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놓여지실 때, 그분은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되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도록 해 드리는 대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가두어 두고 제한하는 상자, 곧 감옥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주님을 속였다. 그들은 그분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환영해 모셨지만, 그분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빗장을 질러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한편으로 보배는 그릇 안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릇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보배는 그릇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 그릇이 닫혀 있는 문제는 자아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너울이다. 이것은 단편적이고 죽은 성경 지식에서 비롯된다. 반면에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좌절시키는 것은 자아이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자아를 대표하는 것은 ‘체면’이다. 체면은 우리의 걸사람, 곧 타고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있는 지위와 성취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자아가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체면을 지킬 때 우리는 자아를 보존한다. 그러나 체면을 잃는 것은 자아를 잃는 가장 좋은 길이다.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너울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일을 방해한다. 체면으로 대표되는 자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그릇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그릇인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길을 얻지 못하실 것이고,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쇄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출구를 찾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조만간 그분은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도록 우리를 부서뜨리실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든, 그리스도는 환경들을 안배하셔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출구를 얻으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사고가 난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을 따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주님께, 이 형제에게서 그분 자신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기회와 길을 드릴 수 있다. 주님을 부르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을 잃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체면과 자아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가로막는 두 가지 주된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시는 것을 막는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너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제한하고 그분께서 해방되시고 표현되지 못하게 막는 자아이다. 너울은 제해되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새롭게 되고 강화되며 해방되기 위해 자아는 부서지고 소진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조만간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다루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영을 해방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을 해방할 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방되실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나 성취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지위와 성취와 타고난 사람은 우리의 걸사람을 구성하는데, 이 걸사람은 소진되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교회생활의 실행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마심, 499-505쪽)*

그리스도를 교회생활의 내용으로 갖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 곧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분이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단지 기관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속 사람, 곧 인격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격이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새로워진 혼과 거듭난 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새로워진 혼은 속사람의 기관이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속사람의 생명과 인격이다. 우리는 강화되어 속사람에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바울의 두 기도가 보여 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초월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는 사중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생활이 무엇인지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교회생활에 들어간 후,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이 단지 기관이 아니라 속사람이며, 우리는 이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착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가 교회에게 전달된 능력에 의해 산다. 또한 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인격에 의해서 산다.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몸, 곧 새사람이 되게 한다. 이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골 3:10-11).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시고 모든 것이시다. 실지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과 태도와 미덕과 우리 삶의 모든 방면이시라는 뜻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 우리의 천연적인 유산과 역사는 사라져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실제와 실행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과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이셔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인격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교회생활의 내용은 어떤 종류의 실행이 아니다. 교회생활의 유일한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교회생활의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행함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 집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문제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신의 선호나 기호에 따라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인격으로 삼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아 산다는 뜻이다. 이런 사상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볼 수 있다. 그 구절은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자신의 인격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 결혼한 자매들에게 장담하건대, 만약 그녀들이 남편을 자신의 인격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한 가정에 두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인격만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핑계를 둘러댄다. “주님, 제가 이것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제쳐 두고 우리의 인격과 선호와 타고난 조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인격에 의해 사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살기를 갈망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인격으로 삼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저의 인격으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소평을 할 마음이 생겨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분을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교회생활의 내용이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재와 진실함이 되시고, 우리는 이 실재와 진실함으로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집회할 때마다, 그리스도도 그곳에 함께 모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빌 1:21상).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함, 702-705쪽)*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음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아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인격으로 삼는 속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해 드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 거듭난 믿는 이들은 두 명의 ‘나’를 갖고 있다. 곧 우리의 이전 인격인 ‘나’와,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의 이전 인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롬 6:6),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이전 인격인 자아는 우리의 혼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인격인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자아를 제쳐 두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죄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거룩함이 한 인격,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련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더 뛰어난 생명으로 바꾸기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삼아 살 때,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거룩함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체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것과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은 서로 다르다. 후자는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의 옛 인격에 의해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으려면, 자신의 옛 인격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켜야 한다.

교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게 하셨던 능력을 보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강하게 되어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에 이르러, 살아 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보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속사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 속사람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함, 730-731쪽)*